

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

시 정 질 문 답 변 서

[서면답변]

< 김진숙 의원 >

○ 안산시 수돗물 '상록수' 용기에 대하여



안 산 시

□ 김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“안산시 수돗물 ‘상록수’ 용기에 대하여”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 질문 요지 >

- 지난 2018년도에 안산시 수돗물 ‘상록수’ 의 용기를 친환경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병에서 펄프 소재의 종이팩으로 변경한 후 시민들이 ‘상록수’ 물에서 냄새가 나고 맛도 이상하며, 간혹 바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.
 - 종이팩 용기의 잘못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나 약품처리로 인한 것이 아닌지 우려됨. 이에 안산시에서 ‘상록수’ 용기에 대한 품질 검수 절차 등 실시여부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
-
- 안산시 수돗물 홍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「상록水」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종이팩으로 변경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.
 - 「상록水」에 사용되는 종이팩은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팩과 동일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입니다.
- 또한 「상록水」는 59개의 먹는 물 검사 항목을 검사하여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.

○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상온에서 4주까지는 물의 변질 없이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

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이팩의 유통기한을 2주로 제한하였습니다.

○ 유통기한이 5주 이상 지난 종이팩에서는 곰팡이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 될 수 있어, 유통기한이 지난 「상록水」는 즉시 폐기 하여야 하나 일부 시민들이 음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.

○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상록水」 포장 박스 외부에 유통기한 준수 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표기하였으며,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○ 또한 우리 시는 「상록水」 생산에 사용되는 종이팩이 안전성은 확인 되었으나, 다시 한 번 공인기관에 품질 및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더욱 더 철저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상록수에서 나는 냄새는 최근 수돗물을 만드는 원수에 이취미물질(2MIB, 지오스민)이 발생되어 분말활성탄 등으로 제거하고 있으나, 완벽히 제거되지 못하여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.

이취미물질은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은 아니지만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종종 제기됩니다. 내년부터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운영되어 상록수뿐만 아니라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도 냄새물질이 제거되어 좀 더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.